

AUTHOR 유태주

TITLE 『킬·빈의 성화론』에 있어서 성화의 완전성 이해

IN 신학과 사회

vol.8 (2004): 143-187

-Abstract-

칼빈의 성화론에 있어서 성화의 완전성 이해

(An Understanding of the Possibility of Perfection in the Doctrine of Sanctification of John Calvin)

Childhood, Community, and Computer

- A Reassessment of Christian Education Practice -

Fang-Lan Chou

(Harnil University &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Christian Education)

유태주
(한일장신대학교 신학부 교수)

Erik Erikson's fourth stage of human development, the stage of Industry vs. Inferiority, must be reassessed in light of contemporary

developments in Asia relating to childhood, community, and the world of virtual reality. Childhood in Asia today is faced with the stresses brought about by a high divorce rate and breakdown of the traditional family and the use of day care while parents work. The formerly ethnically homogeneous cultures of Asia are now being replaced by communities in which there are guest workers from other countries and an increasing number of cross-cultural marriages. Erikson's focus on "toys and reasons" has been replaced by the world of virtual reality and the increasing use of computers with an almost unlimited amount of information available over the Internet. These changes will bring about a shift in the ways in which Christian education practice is carried out in Asia today.

I. 서 론

II. 이중-용납론에 나타난 칼빈의 성화의 완전성 이해

- A. 하나님의 은혜에서 오는 선함의 가치
- B. 하나님의 은혜로 된 신자와 선함에 대한 보상
- C. 그리스도 안에서 이중은혜의 용납

III. 성화의 완전성의 근거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죄역

- A. 청의의 완전성의 기초인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적 직무
- B. 성화의 완전성의 기초인 예수 그리스도의 왕적 직무
- C. 청의와 성화의 완전성의 기초인 예수 그리스도의 양대 직무

IV.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효력으로서의 성화의 완전성

- A. 구원의 원천인 그리스도와의 연합
- B. 그리스도와의 연합에서 비롯된 완전성화

V. 성화의 완전성의 원천으로서의 예정론

- A.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선택
- B.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무조건적인 선택
- C. 하나님의 은혜로 우선 선택이 성화의 완전성의 원천

VI. 칼빈의 성경주석에 나타난 성화의 완전성 이해

- A. 고린도전서 1장 30-31절 주석에 나타난 성화의 완전성
- B. 풀 1:28, 살전 3:13 주석에 나타난 성화의 완전성

VII. 결 론

I. 서론

성화의 완전성 여부에 관한 견해는 다양하다. '감리교'는 웨슬리의 완전성화론에 입각하여 점진적인 성화와 순간적인 성화를 모두 인정하는 반면, 감리교 운동에서 나온 '성결운동'은 보다 순간적인 성화의 축면을 강조했다. 반면 '개혁주의'는 성화의 두 가지 축면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완전 성화라는 개념에 대해 비판적이라고 볼 수 있다. '오순절파'는 둘로 나뉘는데 웨슬리의 완전 성화에다가 성령 세례라는 개념을 덧붙여서 청와 초기의 성화의 단계는 불완전하며 완전 성화의 두 단계 은혜의 활동이 있어야 비로소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음을 강조하는 '성결교적' 오순절파'와 그리스도의 완성된 사역을 강조하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는 것만이 성령 세례의 조건으로서 충분하다고 보는 '비성결파' 및 '하나님 성화'로 나뉜다. 후자는 그리스도의 사역에 더 많은 강조점을 두며 점진적인 성화를 가르친다.¹⁾ 이러한 다양한 견해들 중에서 칼빈에 뿌리를 두는 개혁주의자를 중에서도 성화의 완전성 개념에 대해 비판적인 경우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²⁾

완전성화 개념을 반대하는 이들의 이유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제시 한다. 첫째, 성경은 지상에서 아무도 범죄하지 않는 자는 없다고 하였다 (왕상 8:46, 잠 20:9, 전 7:20, 롬 3:10, 12, 약 3:2, 요일 1:8). 이 같이 명백한 성경적 진술들을 보고도 신자들이 무죄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옳지 않다.³⁾ 둘째, 완전주의는 완전의 표준을 낮춘다. 만일 이 '완전이 타락 전 아담의 완전이나 부활한 신자의 완전 같은 것이 아니라면 무엇 때문에 그것을 '완전'이라고 부르는가? '불완전한 완전'이라

고 말하는 것이 이치에 맞는가?'라고 반문한다.⁴⁾ 셋째, 이 '가르침은'은 혜의 두 단계 사역'이라고 하는 성화를 칭의와 분리시킨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이 '들이'를 함께 나오다. 교란도전서 1:30에서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고 한다. 즉 그리스도를 우리의 칭의로 삶을 때는 언제든지 그리스도를 우리의 성화로 삶을 수밖 에 없다는 것이다(고전 6:11). 결정적인 성화가 어떤 한 시점에 발생하기는 하지만, 그것이 칭의와 상관이 없거나 칭의 후에 오는 경험은 아니다. 칭의와 성화는 동시에 발생한다. 점진적인 성화는 일생 동안 계속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날 특별히 발생하는 '두 단계 축복'을 기대하지 말고 계속적인 세로워침과 성장을 기대해야 한다(롬 12:2, 골 3: 10, 앱 4:23, 벨후 3:18). 넷째, 성경은 신자가 이 세상에서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다고 가로치지 않는다. 성경은 아무도 죄에서 완전히 해방되었다고 주장할 수 없음을 가르친다(요일 1:8). 성경은 또한 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한다고 말한다(요일 1:9, 마 6:12). 성경은 또한 신자들이 이 세상에 있는 한 계속해서 죄와 싸워야 한다고 가르친다(갈 5: 16-17).⁵⁾

이러한 반론들은 대개 요한 웨슬리의 기독자의 완전교리에 반대하기 위한 견해들이다. 칼빈의 성화의 완전성은 은혜로서의 완전성이었고, 웨슬리의 기독자의 완전은 성령세례에 의해 체험으로서의 완전성이다. 따라서 그 강조점이 다르다. 그러나 칼빈과 웨슬리는 본질적으로 산 믿음을 추구하는 선상에서 성화의 완전성을 말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같은 구원관으로서의 성화의 완전성을 공유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앞의 완전성화 개념을 반대하는 논리는 문제점이 없는 것을 문제 가 있는 것처럼 제시하고 있는 엇수고를 하고 있는 것이⁶⁾ 칼빈의 성화

1) 한상희, 『신본주의 신학입문』(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2), 191-192.

2) Charles Hodge, *Systematic Theology* vol. III, 245-258. 박형룡, 『박형룡박사 저작 전집』 V, 358-366. 안토니 후크마, "개혁주의 입장", 『성화에 대한 다섯 가지

전제』, 김원주 역 (서울: 한국기독회성회, 1991), 77-117.

3) 박형룡, 『박형룡저작전집 V; 구원론』(서울: 한국기독교교육연구원, 1977), 363.

4) 후크마, 107.

5) Ibid., 107-108.

6) 예를 들면 칼빈이나 웨슬리 모두가 그리스도인 안에 남아있는 있는 죄의 본성

의 완전성이 이해와 웨슬리의 기독자의 완전을 논하는 중에 자연히 밝혀질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서의 성화의 기독자의 완전성을 강조하고 있다.⁷⁾ 일부 신학자들의 견해와는 달리 칼빈은 성화의 완전성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간파해 서는 안된다. 칼빈은 결정적인 성화와 점진적인 성화를 아우르는 성화의 완전성을 인정하고 있다. 그것은 그의 '이중온총'(double grace, *duplices gratiae*)론 혹은 '이중용납론'이 대변한다.⁸⁾ 칼빈은 성화의 완전성에 대한 이해는 '이중용납론'에서 중점적으로 파악된다.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죽어 마땅한 죄인인 우리가, 완전히 의로운 자로 인정된 다(성화의 완전성).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행함이 있을 때 그 선함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부족하고 거룩하지 못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거룩한 것으로 용납된다(성화의 완전성). 따라서 성화의 완전성의 원천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공로에 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공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에서 비롯된다. 그 뿐만 아니라 그의 성화에 대한 완전성의 교리적 이해는, 칼빈 자신의 사고력의 소산을 인정한다. 칼빈은 신자 안에 있는 죄성을 부인한 개체화파의 견해를 비판하였고, 웨슬리는 절정론에 치우친 무율법주의를 비판하였다. 이런 의미에서 성화의 완전성에 반대자들은 그 완전성에 대한 개념을 파악하지 못하는 반론을 펴고 있으며, 완전성의 목적이 산 믿음을 추구함을 강조하고 있다고 본다.

7) John Calvin, *Institutes of Christian Religion III*, Edited by John T. McNeill, Translated and Indexed by Ford Lewis Battles, The Library of Christian Classics, vol. XXI (Philadelphia : The Westminster Press), i-x. 한철희, 『21세기 인류의 살길』 (영주 : 아세아연합신학대학원 출판부, 2003), 203-261
8) *Inst. III*, i, 1. 칼빈의 '이중온총론'에 대한 이해에는 유력한 학자들이 동의하고 있다. Karl Barth, *The Doctrine of Reconciliation, Church Dogmatics*, vol. IV, 2, trans. G. W. Bromiley (Edinburgh: T. & T. Clark, 1978), 501-505. Hendrikus Berkhof, *Christian Faith*, trans. Sierd Woudstra (Grand Rapids: Eerdmans, 1941), 458-9. Alister E. McGrath, *Christian Theology an Introduction* (Oxford: Blackwell, 1996), 387-388. 한철희, 『21세기 인류의 살길』 (영주 : 아세아연합신학대학원 출판부, 2003), 203-261. 등

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성화를 다루고 있는 그의 성경주석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II. 이중용납론에 나타난 칼빈의 성화의 완전성 이해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이중의 효과를 가지는데 칼빈은 이를 이중온체 내지 이중용납이라 한다. 첫째는 신자의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신자의 청의 를 직접 이끌어 낸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에서 신자가 의롭다고 선포되는 것이다. 둘째는 그리스도와의 연합때문에 신자는 그리스도의 거룩하심에 근거하여 하나님과의 은혜로 된 신자의 선함을 하나님께서는 신자 자신의 것으로 인정하시고 상 주신다.⁹⁾

A. 하나님과의 은혜에서 오는 선함의 가치

우리의 선함은 당연히 할 일을 한 것에 불과하다. 우리의 모든 행위는 불결한 것이 가득함으로 하나님과의 주제하심을 감당할 수 없다는 성경 말씀은 우리의 행위에 어떤 가치가 있는가를 밝혀 준다. 윤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다고 가정한다면, 어떤 보상을 받아야 할 것인가? 성경에는 우리 가 명령 받은 일을 모두 행한 후에도, 자기를 무익한 종으로 생각하라

9) "Christum nobis Dei benignitate datum, fide a nobis apprehendi ac possideri, cuius participatione duplum potissimum gratiam recipiamus; nempe ut eius innocentia Deo reconciliati pro iudice iam propitiatum habeamus in coelis patrem; deinde ut eius spiritu sacrificati innocentiam puritatemque vitae mediteremur." Jean Calvin, *Institutio Christianae Religionis*(1559), Iohannis Calvini Opera Quae Supstant Omnia, Corpus Reformatorum vol. XXX Ed., Gulielum Baum(New York and London : Johnson Reprint Corporation, 1864), III, xi, 1. *Inst. III*, xi, 1. *Inst. III*, xvii, 8.
Alister E. McGrath, *Christian Theology an Introduction* (Oxford: Blackwell, 1996), 387-388.

는 명령이 있다(눅 17:10). 우리는 주를 위하여 필요 없는 일을 한 것 이 없고, 다만 당연히 할 일을 했을 뿐이며 이에 대해서는 감사받을 필요가 없다.¹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행을 주시고, 그것을 “우리의 것”이라고 부르시며 그것을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그 선행에 대해 서 상까지 주시겠다고 증거 하신다. 행위에 칭찬할 만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당연히 우리 것이라고 할 만한 것은 조금도 없다. 그러므로 공로(功勞)개념은 설자리를 잃는다.¹¹⁾ 그러므로 칼빈은, 로마 교회의 스콜라주의자들처럼 선행에 대한 공로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나누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완전히 주님의 것으로 인정한다. 사람에게 돌리는 것은, 선한 일들을 인간성의 불결로 더럽히고 오염시킨다는 것뿐이다. 사람은 아무리 완전할지라도 오점이 없는 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인간의 가장 선한 행위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면, 거기서 하나님의 자신의 의를 보시는 동시에 사람의 불명예와 치욕을 받친다.¹²⁾

따라서 선행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며 행하는 사람에게 무익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사람이 일종의 보상으로서 하나님의 자극의 풍선한 은혜를 받는 것은, 당연히 받을 믿기 때문이다. 아니라, 천절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런 가치를 부여해 주셨기 때문이다.¹³⁾ 칼빈은 “여기에서 각 사람의 성적에 호소한다. 너그러운 사람에게서 토지 사용권을 얻은 후에 그 토지의 소유권까지도 차기 것이라고 주장한다면, 이렇게 배은 망덕한 사람은 그 가지고 있는 것까지 빼앗기는 것이 당연하지 않

은가? 주인이 너그럽게 해방시켜 준 노예가 해방된 노예의 낮은 처지를 숨기고 날 때부터 자유인되었노라고 주장한다면 그런 사람은 이번의 노예 상태로 훈련시키는 것이 마땅하지 않은가?”¹⁴⁾ 반문한다. 그러므로 받은 은혜를 바로게 누리려면, 받은 것 이상을 요구하지 않으며, 은인에게 돌아갈 칭찬을 빼앗지 않으며, 그가 우리에게 넘겨준 것은 여전히 그의 것이라는 듯이 처신하는 것이 인간대 인간의 관계에서의 성직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사람에게 대해서도 이런 신중한 태도를 가져야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신중한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인가 우리는 깊이 생각하여야 한다는 것이다.¹⁵⁾

B. 하나님의 은혜로 된 신자의 선행에 대한 보상

하나님의 은혜로 된 신자의 선행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신자 자신의 것으로 인정하시고 상 주신다. 성경에는 우리의 선행도 형상 불결한 점이 많으며,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그것을 불쾌하게 여기시며 우리에게 노하신다고 가로친다. 우리의 선행은 도저히 하나님의 노여움을 진정시키거나 우리에게 자비를 일으킬 수 없다.¹⁶⁾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를 검토하실 때에, 그 최고의 법에 의거하지 않고, 자비로 판단하시기 때문에 마치 완전히 순결한 것 같이 용납해주신다.¹⁷⁾ 그렇기 때문에 비록 가치가 없는 행위지만 이 세 상뿐만

14) Ibid.

15) “A benefit can only be legitimately enjoyed when we neither arrogate more to our selves than has been given, nor defraud the author of it of his due praise; nay, rather when we so conduct ourselves as to make it appear that the benefit conferred still in a manner resides with him who conferred it. But if this is the moderation to be observed towards men, let every one reflect and consider for himself what is due to God.” Ibid.

10) *Inst. III. xv. 3.*

11) *Inst. III. xv. 3.*

12) *Inst. III. xv. 3.*

13) “Yet those good works which he has bestowed upon us the Lord calls ‘ours’, and testifies they not only are acceptable to him but also will have their reward.” *Inst. III. xv. 3.*

16) *Inst. III. xv. 4.*

17) “Yet because he examine our works according to his tenderness, not his supreme right, he therefore accepts them as if they were perfectly pure;

아니라 내세에서도 무한한 은혜를 보상으로 주신다. 경건한 학자들이 선 행은 현세에서 우리에게 부여되는 은혜를 받을 가치가 있게 하며 영원한 구원은 믿음에 대한 보상이라고 하지만, 칼빈은 이런 구별을 인정하지 않는다.¹⁸⁾

주께서는 거의 항상 수고에 대한 보상과 싸움에 이긴 면류관을 하늘에 두신다. 그러나 우리가 은혜 위에 은혜를 풍성히 받는 사실을 행위의 궁로에 둘리고 은혜와는 철연시키는 것은 성경의 교훈과는 반대되는 생각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라고 하시며(마 25:29,눅 8:18), 적은 일에 치하고 충성된 종은 많은 일을 맡게 되리라고(마 25:21) 하시자마자 동시에 다른 곳에서는 신자들이 풍부하게 되는 것은 없없이 주시는 그의 자비의 선물이라고 가로치신다(요 1:16). 주님은 “너희 목마른 자들이 물로 나아 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하신다(사 55:1). 그러므로 경건한 자들이 구원을 받고 복리를 누리는 것도 모두 순진히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복락과 경건한 자(신자)들의 행위를 고려하신다고 증거 하신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을 확실히 알리시기 위하여 우리 뿐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선물까지도 이런 영예를 받게 하신다.¹⁹⁾ 칼빈에 있어서 성화의 완전성 이해의 근간이 되는 이중은혜의 용납률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C. 그리스도 안에서 이중은혜의 용납

and for that reason, although unmerited they are rewarded with infinite benefits, both of the present life and also of the life to come.” Ibid.

18) Ibid.

19) “Whatever, therefore, is now given to the godly as an aid to salvation, even blessedness itself, is purely God's beneficence. Yet both in this blessedness and in those godly persons, he testifies that he takes works into account.” Ibid.

1. 이중용납의 의미

하나님 앞에서 선자와 죄인에는 이중의 가치가 있다. 바울은 아무도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알지 못하며(롬 3:20), 행위의 도움이 없이도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고 결론을 내린다. 그러나 행위 자체에 어떤 가치가 있느냐 하는 것과, 믿음에 따라 의가 확립된 후에 행위에 어떤 가치를 주느냐 하는 것과는 문제가 서로 다르다.²⁰⁾ 행위를 그 자체의 가치에 따라 평가한다면, 사람은 자기의 어떤 행위를 믿고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없으므로, 행위의 도움이 없이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한다. 따라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죄인이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통하여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동시에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되어 죄의 사함을 받으며 그리스도의 의를 자기의 의같이 입고 하늘의 심판대 앞에 자신 있게 서게 된다.²¹⁾

그러나 죄(罪)를 용서(容恕)받은 후에 따르는 선행(善行)은 그 자체의 가치에 의하지 않고 다른 입장에서 평가된다. 행위에 있는 모든 결함은 그리스도의 완전성으로 덮이고 모든 오점은 그리스도의 순결로 깨끗하게 되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게 만드는 모든 허물의 죄악이 도말되고, 선행 까지도 행상 더럽히는 허물의 불완전이 물려버린 후에는, 신자들이 행하는 선행은 의롭다고 간주된다. 즉 의로 인정된다(롬 4:22).²²⁾

이렇게 이중칭의론은 구원에 있어서 선행의 필요성을 밀排斥한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믿음이다. 그런데 칼빈은 선행이 없는 믿음이나 선행이 없이 성립하는 청의를 꿈꾸

20) “But it is one thing to discuss what value works have of themselves, another, to weigh in what place they are to be held after faith righteousness has been established.” Inst. III. xvii. 8.

21) Inst. III. xvii. 8.

22) Inst. III. xvii. 8.

지 않는다. 믿음과 선행은 굳게 결합되어야 한다는 것을 그는 말한다. 물론 이때에도 여전히 청의의 근거는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에 있다고 주장한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향할 때, 그 믿음을 통하여 주님의 은혜로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이다.²³⁾

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가? 믿음에 의해서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불잡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의에 의해서만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의를 불집으면, 동시에 거룩함도 불잡지 않을 수 없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기' 때문이다(고전 1:30).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의롭게 하시면 반드시 동시에 거룩하게도 만드신다. 이 은혜들은 영원히 풀 수 없는 유대 관계로 결합되어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주의 지혜로 조명하신 사람들을 구속하시며, 구속하신 사람들을 의롭다하시며, 의롭다하신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신다.²⁴⁾ 이 거룩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취해진 것이다(행 26:18). 이런 의미에서 모든 신자는 그들의 영적 성장의 정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성도와 불리운다(롬 1:7, 고전 1:2, 앨 1:1, 빌 1:1, 골 1:1).²⁵⁾

우리는 의와 거룩함을 구별하지만²⁶⁾ 그리스도께서는 자신 안에 두

참여가 그것이다." Alfred. Göhler, 『칼빈의 성화론』, 유정우 역(서울: 한국장

로교출판사, 2001), 83-84.

27) "우리가 그 은혜를 서로 구별할 수 없이 서로 결합되어 있다. 주님께서는 그 두 가지 은혜를 동시에, 결코 다른 은혜 없이 한 은혜만을 선물로 주시지 않는다." *Inst. III. xvii. 1.* 칼빈은 청의와 성화가 서로 밀접하게 서로 속해 있다고 본다. A. Göhler, 84.

"주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은혜로 의롭게 하신다. 동시에 주님께서는 성령의 성화를 통해서 그들 안에 실제적인 의를 원래대로 회복하신다..." *Inst. III. iii. 19.*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에서 청의와 성화는 서로 결합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은혜들은 하나이다. A. Göhler, 84-85.

28) *Inst. III. xvi. 1.*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의 통일성이 청의와 성화가 언제나 동시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주어지고, 동시에 주어지는 것처럼 수 있는 것으로 표현된다. 대양의 열파 태양의 빛이 나누어질 수 없는 것처럼

성화와 청의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은혜이다." A. Göhler, 85.

24) *Inst. III. xvi. 1.*

25) Henry Clarence Thiessen, *Lectures in Systematic Theology* (Grand Rapids: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 1979), 288.

26) *Inst. III. xi. 6.* "성경은 두 가지 은혜의 선물을 분명하게 구별한다. 그것은 로마서 7장과 8장의 구별이다.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은 성화의 실제적인 의로 그의 불완전에 대하여 탄식한다. 로마서 8장에서는 청의의 선거된 의로 피한 다. - 지금 우리는 이중의 순결을 필요로 한다. 청의와 성화, 저희감으로부터의 자유와 죄의 노예 됨으로부터의 자유, 곧 전가의 순결과 실제의 순결에의

가치를 다 포함하시며, 그 둘은 서로 뗄 수 없게 결합되어 있다.²⁷⁾ 그리스도 안에서 의를 얻기 원하는가? 그렇다면 우선 그리스도를 소유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소유하면서 주님의 거룩함에 참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스도는 둘로 나누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고전 1:13). 주께서는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시며 우리가 이 은혜들을 누리도록 하시는 방법은, 주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뿐이므로 주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동시에 주신다.²⁸⁾ 한쪽이 있으면 반드시 다른 쪽도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행위와 떨어진 것이 아니면서도,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님이 사실인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참여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으며, 그리스도안에 참여한다는 것은 의에 둘지 않게 거룩함을 포함한다.²⁹⁾

2. 첫 번째 용납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이중으로 용납 받는다. 첫번째 용납은 하나님에게 주시는 은혜이다. 사람이 처음에 하나님께 용납될 때에는 전혀 아무 선한 것이 없을 뿐 아니라 각종 악이 속에 가득하고 또 그를 뒤덮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거지 주시는 자비를 분명히 나눠보이신다. 사람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받아들이시는 유일한 이유는, 만일 사람을 그대로 버려 두면 완전히 멸망할 것을 아시고, 그들의 멸망을 원하시지 않기 때문에 멸망에서 구원시키려고 자비를 베푸시는데 있다.³⁰⁾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본성에서 그의 자비심을 일으키는 비참한 상태 외에 아무것도 발견하실 수 없다. 그러므로 사람이 처음에 하나님께 용납될 때에는 전혀 아무 선한 것이 없을 뿐 아니라 각종 악이 속에 가득하고 또 그를 뒤덮고 있었다. 그렇다면 나는 묻는다. 어떤 천품을 근거로 해서 그에게 하늘의 부르심을(希 3:1 참조) 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할 것인가?³¹⁾

그리므로 로마교회처럼 인간의 공로에 대해 헛된 꿈을 꾸는 것은 이제 그만두어야 하며, 하나님의 거지 주시는 자비의 은혜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중생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사실에 대하여 로마교회는 고별로에게 말한 천사의 말을 왜곡하고 있다. “그들은 천사가 고별로의 기도와 구제가 하늘에 상달되었다고 한 말을(希 10:31), 사람이 선행에 대한 열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준비를 하-

게 된다는 뜻으로 해석한다.”³²⁾ 그러나 “고별로가 진정한 자비 즉 하나님의 대안 경외심을 가진 것을 보면 이미 자비의 영의 조명을 받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그는 바울이 성령의 가장 확실한 열매라고 가로친 의를(갈 5:5) 실천하고 있었으므로 성령에 의해 성결케 되었다. 그에게 있은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고 했으나 그는 이 일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다. 자기의 노력으로 이 일을 함으로써 은혜를 받을 만한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받아들이시는 유일한 이유는 사람을 그대로 버려 두면 완전히 멸망할 것을 아시고 그의 멸망을 원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를 해방하시려고 자비를 베푸시는 데 있다. 참으로 성경에는 어디를 찾아보아도 이 교리를 반대하는 말씀이 한 마디도 없다. 이제 우리는 어째서 이 용납이 사람의 의와는 아무 관련도 없는가를 그리고 사람은 이 위대한 은혜를 받을 가치가 전연 없는 가련한 죄인이지만, 그런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인자하심을 베푸신다는 순수한 증거가 곧 이 용납이란 것을 알게 되었다.³³⁾

3. 두 번째 용납과 완전성화

두 번째 용납은, 하나님께서 신자들이 부르심을 받은 후에 이 용납에 의해서 그 행위도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다는 것이다(벧전 2:5). 이는 주께서 자신의 영으로 그들 안에서 역사하시는 선한 일을 포용하시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신자들의 행위를 받으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 자신이 그 행위의 근원이시기 때문이다. 신자들의 행위에 불어있는 결함과 오점을 인자하신 아버지께서 용서하시지 않는다면 그것이 아무 부족함 없는 것같이 선한 것으로 인정받지 못할 것이다. 경건한 자들도 죽을 육체에 쌓여 있기 때문에 그들은 여전히 죄인이며, 그들

30) *Inst. III. xvii. 4.*

31) "As man is by nature, God finds nothing in him which can incline him to mercy, except merely big wretchedness. If it is clear then that man, when

God first interposes for him, is naked and destitute of all good, and, on the other hand, loaded and filled with all kinds of evil, - for what quality, pray, shall we say that he is worthy of the heavenly kingdom? Where God thus clearly displays free mercy, have done with that empty imagination of merit." *Inst. III. xvii. 4.*

의 선행은 아직도 불완전하며 육의 죄악의 냄새를 풍기고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죄인에 대해서나 그 행위에 대해서나 그대로는 받으실 수 없고 그리스도만 안에서만 포용하실 수 있다.³⁴⁾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의 용납으로 죄인인 우리가 의롭다함 받고, 우리의 행위도 부족함에도 선하게 용납된다는 사실을 알 때, 행위가 칭의의 자료가 될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한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만 안에서 그 자신 자비로 우리의 부족한 선행도 온전하다고 받아주신다.³⁵⁾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중생한 자의 흠 많은 선행이라도 온전하다고 기뻐 반으시는가? 이 문제에 대한 칼빈의 깊은 중생한 자의 흠 많은 선행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하다고 반으신다고 설명한다.

사람을 떨망의 구렁텅이에서 구출하신 주님께서는 양자로 삼으시는 은혜로 사람을 자신의 자녀로 성별케 하셨다. 그리고 사람을 다시 태어나게 하셔서 새로운 생명의 모습으로 만드셨으므로 이제는 그의 영의 선물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로서 그를 포옹하신다(교후 5:17). 이것이 베드로가 언급한 "받으신다"는 것이며(행 10:34, 벤전 1:17), 신자들은 부르심을 받은 후에 이 용납에 의해서 그 행위도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다(벧전 2:5). 이는 주께서 자신의 영으로 사람을 인에서 사역하시는 선한 일을 사랑으로 포옹하시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³⁶⁾

그러므로 신자의 선행이 아무리 흠이 많고 부족할 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아무 부족함이 없이 선하다고 받아주심은, 오직 하나님 자신이 그 행위의 근원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한다.³⁷⁾ 동시에

34) *Inst. III. xvii. 5.*

35) "But because believers, while encompassed with mortal flesh, are still sinners, and their good works only begin savor of the corruption of the flesh, God cannot be propitious either to their persons or their works, unless he embraces them more in Christ than in themselves." *Inst. III. xvii. 5.*

36) *Inst. III. vii. 5.*

에 여기에 성화의 완전성이 있다. 그 거룩성이 우리의 선행에 근거한 것 이 아니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거룩에 힘입어 우리의 거룩성이 용납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중칭의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는 자를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의와 완전하신 거룩하심으로 인하여 의와 거룩으로 용납하신 것이므로, 이중칭의는 그 성격상 완전성화를 전제한다. 즉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에게서 자신의 모습을 보시기 때문에 그들을 기뻐하시며 사랑하신다. 그러므로, 거룩과 의를 지향하는 신자들의 생활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하는 것도 당연하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칭의 받은 경건한 자들이라도 죽을 육에 쌔여 있기 때문에 그들은 여전히 죄인이며 그들의 선행은 아직도 불완전하며 육의 죄악의 냄새를 풍기고 있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죄인에 대해서나 그 행위에 대해서나 그대로는 받으실 수 없고, 다만 그리스도만 안에서만 포용하실 수 있다.³⁸⁾ 하나님께서 의를 지키는 자들에게 친절하시며 자비로우시다고 증거하는 구절들은 예수 그리스도만 안에서 포용된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그의 손이 깨끗하기 때문에 상을 받았다고 언명하면서도(심하 22:21, 시 18:20 참조)" "나를 기뻐하시므로" 구원하셨다고 하였다(심하 22:20). 거기서 다윗은 자기의 입장이 선하다는 것을 말하지만, 모든 선물에 선행하며 그 원인이 되는 절없이 베푸시는 자비를 전제한 말이다.³⁹⁾

이렇게 칼빈은 죄인을 의롭다하심도 그리스도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요, 중생된 자의 부족한 선행도 기쁘게 받으심도 예수 그리스도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임을 성경에 근거하여 말한다.⁴⁰⁾ 따라서 이러한 이중용납 내지는 이중칭의의 기초가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기초하고 있다는

37) *Inst. III. xvii. 5.*

38) *Inst. III. xvii. 5.*

39) *Inst. III. xvii. 5.*

40) 결국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게됨으로서 절없이 의롭다고 용납되면, 또한 우리의 행동들까지도 의롭게 여겨지며, 영원한 상금까지 받게 된다. John Calvin, *Instruction in Faith*(1537) (교양서: 크리스챤다이제스트, 2001), 46.

성격으로 보이서, 칼빈의 성화에 대한 이해는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한 완전성화를 인정한다고 본다.⁴¹⁾

이러한 칼빈의 입장에서 볼 때 후크마를 비롯한 일부 개혁신학자들은 적어도 중요한 부분에서 칼빈의 견해를 간파하고 있다고 본다. 즉 결정적인 성화를 하나님의 은혜로서의 성화로 보면서도⁴²⁾ 점진적인 성화와의 관계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공로에 의한 그 성승효과로서의 완전성을 강화한 것이다.

III. 성화의 완전성의 근거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은 우리의 성화의 완전성이 된다. 우리의 선행이 비록 미흡하고 추하다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주님의 대속의 공로로 인하여 우리를 완전히 거룩하다고 인정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성자 하나님은 우리를 외롭다하길 뿐만 아니라 거룩하게 하시는 중보의 사역을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서 감당하시려고 인간의 연약한 육체를 입으시고 시공의 세계 속에 친히 임하셨다.

하나님은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령과 의로 인간에게 자기를 계시하셨다. 따라서 그리스도는 예언자요 왕과 대제사장으로서 인간에게 보내졌다. 예언자 직분은 대제사장 직분과 왕의 직분에 대한 신호이다. 그러므로 예언자 직분을 통하여 먼저 복음의 선포가 있어야 제사장과 왕의 직무가 실현가와 부활로서 확증됨으로⁴³⁾ 세 직분은 모두 중

요하다.⁴⁴⁾ 그러므로 제사장과 왕의 직무가 예언자 직무의 도움 속에서 그리스도의 중보자의 전제행위를 총괄한다고 볼 수 있다.⁴⁵⁾

A. 칭의의 완전성의 기초인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직 직무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취하신 목적은 인류의 죄를 소멸시키기 위해서 자신이 희생함으로 속죄제물이 되시려는 데 있다고 칼빈은 진술한다.⁴⁶⁾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칭의 질료인(*causa materialis*)이 되신다. 왜냐하면 주님은 하나님 앞에서 외롭게 되기 위하여 그의 희생적 죽음에서 필수적인 순종을 하셨기 때문이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제물로 인하여 하나님의 화해는 인간의 칭의의 기초이다.⁴⁷⁾ 48)

칼빈은 제사장직의 본질을 화해와 중보로 보고 예수 그리스도는 순결 무구한 중보로서 자신의 성결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시키심으로 그 제사장직을 완전히 수행하셨다고 한다.⁴⁹⁾ 그리스도의 속죄사역은⁵⁰⁾

예언자직의 중요성에 대하여는, 김세윤, 「구원이란 무엇인가?」 (서울: 두란노서원, 2004), 31-51.

44) *Inst. II*, xv, 1-6.

45) Alfred Göhler, 104.

46) *Inst. II*, xii, 4.

47) Alfred Göhler, 104-105.

48) 헤이렐베르그 요리문답 37-44문답들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사역이 칭의 기초가 되심을 상세하게 설명한다. Oliver Fratio ed., *Confessions et Catechismes de la Foi Réformée* (Geneve: Labor et Fides, 1986), 146-48.

49) *Inst. II*, xv, 6.

41) Thomas S. Popkewitz, *Cultural History and Education : Critical Essays on Knowledge and Schooling*, (New York : Routledge Falmer, 2001), 195.

42) 후크마, 93-94.

43) 그리스도께서 참 예언자이시며 메시아 이심을 결정적으로 증명해준 사건이 삼일만의 부활사진이다. 그리고 지금도 말씀자체이신 주님께서는 설교와 성경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예언자직을 감당하고 계신다. 이종성, 「기독론」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4), 156. 또한 그리스도의

너무나 완전하고 궁극적이어서 죄에 대하여 형벌 받을 책임을 신자에게 조금도 남기지 않고 단번의 회생으로 대속하셨다.⁵¹⁾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의 완전성을 개탄, 궁극성, 독특성, 그리고 본질적 효능성으로 설 명하기도 한다.⁵²⁾ 인간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바로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의 의로운 자주와 진노 아래 있으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호의를 얻어 주신다.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의 가장 핵심을 이루는 속죄(expiation) 사역이라고 본다. 히브리서 7장까지에 걸쳐 잘 설명되어 있듯이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죽음을 제물로 삼아 우리의 죄과(guilt)를 도말(塗抹)하시고 우리의 죄 짐(ransom)을 치르셨으므로 참된 제사장직은 그리스도께만 속한다.⁵³⁾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직분을 수행, 삼지가에 즉 으시고 부활하신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화해는 우리의 칭의의 기초가 된다. 즉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대속사역을 증거하여 윗으며,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실현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 사실의 완전한 효력을 입증한다.

B. 성화의 완전성의 기초인 예수 그리스도의 왕적 직무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왕적 통치 행위는 인간을 거룩하게 하는 기초가 된다.⁵⁴⁾ 칼빈은 그리스도의 영적 왕국의 통치를 두 가지 차원으로

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⁵⁵⁾ 그리스도의 교회의 머리로서의 통치와 개인의 주로서의 통치가 그것이다. 그리스도의 교회의 통치는 그의 영원한 보직을 토대로 세워지고(서 89:35-37), 개인의 심령 속에 이루어지는 영적인 통치는 이 나락에 속하지 않은 영적인 왕국이며(요 18:36)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소망을 갖게 한다. 그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화락"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이다(롬 17:17).⁵⁶⁾

또 하나의 그리스도의 통치의 영역은 권능의 왕국이라고 부르는데 전 우주에 미치는 주님의 통치를 말한다.⁵⁷⁾ 우주를 다스리고 만유를 섭리하시는 권능의 왕으로서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과 교회를 위하여 섭리하시는 통치하신다고 본다. 또한 하나님 우월에 앉으셔서 세계를 통치하시는 그분은 신인(God-Man)으로서, 그의 통치는 인간의 본래적 왕적의 회복이라는 커다란 의미를 가진다. 하나님께서 본래 창조시 인간에게 부여하신 대리적 통치권은 청지기적 사명-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흉상 왜곡되고 죄악된 형태로 나타났으나, 그리스도에 의하여 그 본래적 의미가 회복되었다. 인간은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통치권을 회복하게 되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회복한 통치권을 사용하여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⁵⁸⁾

따라서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는 성령을 통하여서 죄인의 필수적인 죄 개와 성화를 주관하신다. 우리가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도록 하기 위하여,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의 선물을 나누어주신다. 특히 중생한 자들의 성화를 점차적으로 완성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신다.⁵⁹⁾ 그 결과 성화의 기원은 물론이고 성화의 완성까지도 그리스도

51) 칼빈은 대체사장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회생이 단체적이라는 사실을 주장

하기 위하여 교황주의자들의 잘못을 다음과 같이 비난한다. "그리므로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으로 만족하지 않고 감히 그를 세로이 제물로 바친노라고 매일 이 것을 시도하며, 민족에서 그리스도를 제물로 바친다고 생각한다."(Inst. II, xv, 6) 신복윤, "칼빈의 그리스도 이해(III)", 『신학정론』 제18권 2호 (2000), 431.

52) 로버트 레이몬드(Robert L. Reymond), 『최신 조작신학』, 나庸화 외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4), 847-48.

53) 한상희, 176-177.

54) Inst. II, xv, 5., Alfred Göhler, 106.

55) Inst. II, xv, 3-5.

56) 한상희, 174-175.

57) 그리므로 주님의 우주적 왕권을 교권으로 대체하거나, 교회권으로 오히려 서는 안 된다. 이종성, 『기독론』,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4), 193-94.

58) Ibid., 175.

59) Inst. III, xx, 12.

의 왕적 직무에 근거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⁶⁰⁾

C. 칭의와 성화의 완전성의 기초인 예수 그리스도의 양육 직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왕적 권세는 제사장직 직무와 연합되어 있다.⁶¹⁾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히 순결무구한 중보로서 자신의 성질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회복시키심으로 그 제사장직을 완전하고 궁극적으로 수행하심으로 죄에 대하여 형벌받을 책임을 신자에게 조금도 남기지 않았다. 또한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는 성령을 통해서 죄인의 필수적인 회개와 성화를 주관하신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직 직무와 왕적 직무가 합하여 우리의 칭의와 성화의 근거가 되며, 주님의 직무수행의 완전성 때문에 우리의 칭의와 성화 또한 완전성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IV.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흐름으로서의 성화의 완전성

우리의 모든 구원의 근거도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흐름이듯이, 신자의 선행도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흐름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칼빈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은혜의 근간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완전한 연합을 전제함으로 그 연합으로부터 오는 성화 역시 완전성화로 이해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A. 구원의 원천인 그리스도와의 연합

칼빈은 성령을 통한 그리스도와의 연합(union with Christ)이 가장

중요한 구원의 시작이라고 보며, 그리스도와 연합함이 없이는 그가 이루 어 놓은 모든 구속 사역이 우리에게 무익하다고 말한다.⁶²⁾ 아버지께서 폭생자에게 주신 은혜들은 그리스도 자신이 개인적으로 쓰기 위한 것이 아니고, 빙くん하고 굳굳한 사람들을 부유하게 만드시기 위한 것이었는데, 우리는 그 은혜들을 어떻게 받는가 하는 것이다. 우선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밖에 계시고 우리가 그와 분리되어 있는 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그가 고난 당하시며 헝겊신 일은 모두가 우리에게 무익, 무가치한 것임을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아버지께로부터 받으신 것을 우리에게 나누어주시기 위해서는 그가 우리와 것이 되며 우리 안에 머물려야했다.

그런 까닭으로 그를 우리의 “버리”(엡 4: 15), “많은 형제 중에서 말이”를 “(롬 8: 29)이라고 하였다. 또 우리편에서는 그에게 “집불암을” 받으며 (롬 11: 17),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고 하였다(갈 3: 27). 이는 이미 말한 바와 같이 우리가 그와 한 품이 되기까지는 그가 가져온 것이, 우리와 아무 상관도 없기 때문이다.⁶³⁾

그리스도와 연합도 믿음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러나 그 배후에는 성령께서 계신다. 성령의 신비로우신 지역으로 되는 것이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것을 얻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복음을 통해서 제사된 것, 즉 그리스도와의 친교를 모든 사람이 무차별하게 받았다는 것이 아님을 볼 때에 우리는 더 뛰은 견지에서 성령의 신비로운 역사를 검토하는 것 이 자리에 놓는 일일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령의 작용에 의해서 그

62) "Calvin maintains that salvation is only in Christ, and it is obtained in union with Christ through the ministry of the Holy Spirit." Jae Sung Kim, "Unto Cum Christo: The Work of the Holy Spirit in Calvin's Theology", (Ph. D. dissertation, Westminster Theological Seminary, 1998), 43. 바르트는

지나친 기독론 중심으로 칼빈의 신학에서 성령론을 약화시켰으나, 웨일드는 칼빈의 개혁교회 건설의 기반이 되는 교리는 성령의 중개론에 있다고 보았다. Benjamin B. Warfield, *Calvin and Augustine* (Philadelphia: The Presbyterian and Reformed Publishing Company, 1956), 130.

60) Alfred Göhler, 107.

61) Alfred Göhler, 104.

63) *Iust. III. i. 1.*

리스도와 그의 모든 유익을 누리게 되기 때문이다.”⁶⁴⁾

그리스도께서는 “물과 피로 입하-서” 성령으로 하여금 그에 관한 증거를 하시게 하셨다(요일 5:6-7). 이것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구원을 우리가 놓치지 않게 하시려는 의도이다. 하늘에 증거하시는 세 분(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 계신 것처럼, 땅에도 세 증거자 즉 물과 피와 성령이 있다(요일 5:7-8). “성령의 증거”란 말이 되풀이된 데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 우리는 이 증거가 우리의 마음 속에 인(印)과 같이 새겨진 것으로 느끼며 그 결과 그것은 그리스도에 의해 깨끗히 하심과 회생을 우리 마음에 인 치신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말하기를 선자들은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 하심을 입은 자”라고 했다(벧전 1:2). 이런 말로써 베드로가 설명하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거룩한 피를 흘리신 것이 하사로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신비롭게 물을 빼려 우리의 영혼을 깨끗이 씻으신다는 것이다. 같은 이유로 바울은 깨끗이 씻은 일과 의롭다 하심에 대해서 말할 때에 이 두 가지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우리가 얻게 된다고 한다(고전 6:11). 요약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연에게 효과적으로 연결시키시는 때는 성령이다. 이렇게 성령께서는 신자들이 복음을 들을 때 내적인 부르심을 통하여 선자들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겨나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신다. 그러므로 이 믿음(faith)은 구원으로 이로게 하는 유일한 수단(手段)이 되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은혜를 받아 누리는 통로(通路)가 된다.⁶⁵⁾

B. 그리스도와의 연합에서 비롯된 원천성화

선자의 선행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증거라는 의미에서도 그 원천성을 가진다. 성경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주님과 연합됨으로 의와 구원을 모두 받는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요일 5:12), “믿는 자는 –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요 5:24, 6:40),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어 영원한 생명의 후사가 되었다(딛 3:7, 롬 5:1-2). 선자들은 그리스도께서 내주(內住)하시므로(요일 3:24), 주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굽게 연결된다. 주님의 생명에 참여한 자들은 하늘 자리에 앉는다(엡 2:6). 그들은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으며 (골 1:13), 구원을 얻는다. 이 구절의 의미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 우리는 의를 얻는 능력이나 단지 구원을 얻는 능력을 받는다는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 우리는 의와 구원을 모두 받는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든지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으면, 즉시 하나님의 자녀와 하늘의 흑사와 의에의 참여자와 생명의 소유자가 된다. 그리고 어떤 이들의 말과 같이 공로를 세울 기회를 얻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공로를 전부 옮겨 받는다.⁶⁶⁾

인간의 성화에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자사이에 한 중보자가 필요하였다. 참 인간이며 참 하나님이셔야만 하는 이 중보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⁶⁷⁾

첫째 인간의 성화를 위하여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당연히 하나님의 성품을 지니신다.⁶⁸⁾ 다른 사람을 거룩하게 하는 그리스도는 모든 결함으로부터 순결하다. 그리스도의 그 특별한 거룩은 동정녀 마리아의 수태로 나타난다. 그 특별한 수태의 형식을 통하여, 그리스도는

64) "And although it is true that we obtain this by faith, yet since we see that all do not indiscriminately embrace the offer of Christ which is made by the gospel, the very nature of the case teaches us to ascend higher, and inquire into the secret efficacy of the Spirit, to which it is owing that we

enjoy Christ and all his blessings." *Ibid.*

65) *한상희*, 183.

66) *Inst. III. xv. 6.*

67) Alfred Göhler, 28.

68) L. Berkhof, *Systematic Theology* (Grand Rapids: Wm. B. Eerdmans Publishing Co., 1979), 316-17

죄와 관련이 없는 상태로 성육신 하셨다. 그 수태방식이 증거 하여주는 대로, 중보자는 우리 죄인들과 분리된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서 록한 씨'이다. 하나님의 거룩한자 예수 그리스도는, 삼위일체 성자 하나님 이실 뿐만 아니라, 중보자로서 또한 인간과 구별된다. 이와 같은 개념에서 '하나님의 거룩한자' 중보자로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모든 공통성에서 구별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유의해야 할 것은 비교는 거룩과 죄의 비교이다.⁶⁹⁾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유의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의 거룩은 죄인인 인간과 구별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하게 한 신자와 거룩과도 구별된다.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면에서 칼빈은 그리스도 자신을 위해 서 가진 그리스도의 거룩을 그리스도를 통해서서 가 진 신자들의 거룩과 구별한다. "그리스도의 거룩은 본성에서 나오는 반면에, 우리는 하나님의 몸으로부터 자주를 받았다- 리스도는 완전한 거룩을 갖는 반면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만큼 의 거룩을 갖는다.- 주님의 거룩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거룩으로부터 얻을 떼만 우리는 거룩해진다."⁷⁰⁾

둘째, 인간의 성화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본성을 펼쳐 헤였다.⁷¹⁾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침된 중보자로서, 그가 또한 침된 인간이 될 때만 인간을 거룩하게 할 수 있었다. 성육

69) Alfred Göhler, 28.

70) Alfred Göhler, 28-29.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연합'에서 오는 신자와 전가됨 거룩성에 대하여 성경의 계시를 떠나 잘 못 생각하면 일반종교의 이론과 병 신론적(panthetic)인 '신인합일론'에 빠질 위험이 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신인합일론'의 차이는 피조물인 인간이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대속의 은혜를 입음으로 어두움의 중에서 빛의 자녀로 거듭나는 근거로서의 '그리스도와의 연합', 사탄의 거짓에 넘어가 피조물이 하나님같이 되고자 선악과를 먹은 것은 '신인합일론'에 속하는 죄악의 차이점이다. 그리고 복선 혼적인 신인합일론은 모든 인류는 신의 일부분이 되는 교민에 빠진다.

Millard J. Erickson, *Christian Theology*(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91), 49.

71) L. Berkhof, 318.

신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인성 안에 성화의 능력을 두어서, 이제 인간에서 인간은 거룩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죄인은 자기 스스로 순결해질 수 없고, 자기 스스로 거룩해질 수도 없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자신 밖으로부터 순결을 찾아야 한다. 죄인은 죄인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한 대리자를 필요로 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으로서, 참 인간으로서, 전능한 중보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인간을 대리할 수 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적 직무이다. "포 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요 17:19). 이 말씀으로 성희가 어떤 군원에서 흘러나오는지를 요한은 말한다. 곧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아버지께 성별하여, 그의 거룩하심이 우리에게 미치도록 하셨다. 그리고 그것은 전기를 통해서서 뿐만 아니라⁷²⁾, 우리가 성령을 통해 실제의 거룩으로 새롭게 되도록,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우리를 아버지께 내놓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 이 대리하는 그리스도의 성화는 청의에 대하여 유효한 것처럼, 그의 거룩함이 단순한 전가로 충분하지 않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거룩은 실제로 우리에게 온다. 우리는 그의 성령을 통해서서 참으로, 그리고 실제의 성도로 새로워진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거룩을 전가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또한 우리에게 그 거룩을 선물로 주신다. 그것은 주님의 왕의 직무를 통해서 일어난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으로서 있는 그분은, 이제 교회의 왕으로 이어지 우편에 앉아서 그의 성령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 "주님께서는 아버지에게 받은 것을 우리에게 전해 주기 위하여 통치하신다."⁷³⁾ 왜냐하면 "아버지는 그의 독생자에게 그의 은혜의 선물을 자기

72) 전기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의로움과 거룩함이 되셨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앞에 앉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자체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고전 1:30)

73) Inst. II, xv. 4.

자신을 위해 사용하도록 준 것이 아니고, 그것으로 그가 가난한 자와 곤궁한 자에게 그 선물로 넘치도록 하기 위하여 주셨기 때문이다.”⁷⁴⁾

그리면 그리스도의 거룩을 우리 그리스도인의 것으로 만드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는가? 곧 그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요 14:20, 룸 6:11, 8:1, 교후 5:17, 앤 1:4, 2, 13, 풀 2:8-15) 즉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이 거룩은 인간에게 자기의 것이 될 수 있다. 그리스도께서 인간에게서 멀리 있을 때, 아버지로부터 그리스도에게 주어진 구원은 인간과 관계를 가질 수 없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것이 되어야 하며, 그리고 우리는 그와 함께 하나님 되어 함께 자라나야 한다.⁷⁵⁾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실제로 실체적 연합을 갖게 될 때만 일어날 수 있다. 그것은 그리스도와 연합의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⁷⁶⁾

칼빈에 의하여 그리스도와 인간이 연합이 어떻게 되는지, 그 문제를 간단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 루터파의 오시안더는 이 하나님을 ‘본질적’(essential)인 것으로 파악하였다. 그는 그리스도의 본질이 우리의 본질과 섶이는 것을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보고,⁷⁷⁾ 그 결과 아버지와 성령이 그리스도 안에 계시며 신성의 충만함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그 안에서 우리도 신성전체를 소유한다고 말하였다.⁷⁸⁾ 이러한 사실은 사실상 신인합일론(창 3:5)인 것이다. 그러므로 칼빈은 그리스도의 내주(內住)를 신비한 연합으로 설명할 때 오시안더의 어리석은 혼동에 반대하였다. 칼빈은 그 하나님을 ‘본질적’인 것으로 파악하지 않고, ‘영적’인 것으로 파악하였다. 인간과 그리스도와의 ‘실체적’(substantial)연합이 성령의 사역을 통하여 이루어진다.⁷⁹⁾ 이 세상에 사는 인간의 개념으로 그리

74) Alfred Göhler, 28-30.

75) *Inst. III*, 1, 1.

76) Alfred Göhler, 30.

77) *Inst. III*, xi, 5.

78) 원종천, 『칼빈과 청교도 영성』 (서울: 도서출판하나, 1996), 38.

79) *Inst. III*, xi, 5, 10.

스도와 함께 하는 천성의 삶은 숨겨진 채로 있고, 그것은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만 불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⁸⁰⁾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성령의 사역으로부터 분리될 수 없다. 성령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해로우신 사역을 통해서 가능하다.⁸¹⁾ 따라서 이 연합은 완전한 연합이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품이요 자체의 각 부분이라”(교전 12:27). “우리는 그 품의 자체임이니라”(엡 5:30, 교전 6:15). 다만 우리가 주의 할 것은 그리스도와 신자의 연합을 범신론자들의 신비적인 ‘신인합일(神人合—)’이 결코 아니라는 점이다. 따라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인간성이 파괴되거나 또는 그리스도나 하나님께로 흡수되어지는 것과 같은 본질의 합일이 아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와 신자와의 관계는 아무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성숙하고 성화 되었다 하더라도 역시 그리스도시며, 신자는 신자인 “I”와 “Thou”的 관계라고 말한다(빌 3:7-14).⁸²⁾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신자의 완전한 연합은 믿음을 통해서 성령으로 이루어지며, 주님의 죽으심으로 죄 사함을 얻고 주님의 부활로 새 생명을 얻게 된다(룸 6:5). 또한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그리스도의 거룩하심이 전가됨으로 성령의 은사와 함께 열매를 맺게되는 성화가 이루어진다.⁸³⁾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성화는 그리스도의 완전하고 순전하심이 페조몰인 우리에게 전가된다는 의미에서 완전한 성화로 이해된다. 칼빈의 신자의 선행개념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의 필수적인 행위이므로 완전성화일 수 밖에 없다고 본다. 불완전성화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불완전하다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때의 완전성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완전이지 인간의 축면에서 보는 완전성은 아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

80) Alfred Göhler, 31.

81) L. Berkhof, 450.

82) Henry Clarence Thiessen, *Lectures in Systematic Theology* (Grand Rapids: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 1979), 283.

83) *Ibid.*, 284.

한 풍로에 의한 완전인 것이다.

V. 성화의 완전성의 원천으로서의 예정론

칼빈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있다고 단언한다.⁸⁴⁾ 결코 인간의 선행이나 심지어 믿음도 선택의 균원이 될 수 없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우시며 조건 없는 선택의 예정 이 구원의 균원인 것이다. 그렇다면 구원의 중요 요소인 산 믿음을 가능하게 하느 성화의 완전성도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그 균원인 것은 당연한 것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심에 근거하여 거룩하다고 인정 함 받는 것도 역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그 균원인 것이다. “예정론은 구속에 대한 설명전체를 완성하고 조명한다.”⁸⁵⁾ 그 러므로 예정론은 구원과 산 신앙의 핵심인 성화의 완전성의 증거인 동시에 그 균원인 것이다.

칼빈이 예정론을 성화의 완전성의 균원으로 보고 있다는 점은 다음 몇 가지 논점을 통하여 알 수 있다.

A.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선택

칼빈은 인간 구원의 문제의 기초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선택은 인간 구원의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원천임을 말해줌으로 우리의 겸손을 촉구하려는 것으로 이해한다. *Inst. III. xxi. 1.* 그러므로 칼빈의 예정론은 결정론(기물관점과 같은)이나 민족구원설(길 바르트의 논리와 같은)을 반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cf. Johannes Calvin: *Von der Vorherbestimmung Gottes*, übersetzt Wilhelm H. Neuser (Düsseldorf: der Evangelischen Kirsche, 1998), 8-9.

칼빈의 성화론에 있어서 성화의 완전성 이래 . 유태주 171

선택을 강조한다. 선택은 칼빈에 있어서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해되고 인정되어야 한다.⁸⁶⁾ 하나님의 영은 오직 그리스도 위에 머무신다(마 3:17).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선택은 분리할 수 없는 관계이다.⁸⁷⁾ 우리가 구원과 생명과 천국의 영생을 구하려면, 그리스도 이외에는 다른 곳 이 없다. 그분만이 생명의 샘이며, 구원의 끓이며, 천국의 상속자이시다. 그런데, 선택의 목적은 하늘 아버지께서 자비로 삼아주신 우리가 그의 은혜로 구원과 영생을 얻는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로서 받아들이신 자들은 그들 자신 안에서 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엡 1:4).⁸⁸⁾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나”(엡 2:10), 선한 행위의 원천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가 아니면 그들을 사랑하실 수가 없고 또한 그들이 처음에 먼저 그리스도에 침여된 자가 아니면 천국 기업의 영광을 얻게 하실 수가 없다.⁸⁹⁾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자기 백성을 삼기 원하는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펼칠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정하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게되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공로로 완전히 거룩 하나님의 자녀로 정하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다. 따라서 선택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화의 완전성의 균원이 된다. 만일 우리가 구원과 거룩하심으로 선택받지 못하였다면 그리스도와의 연합도 구원도 성화도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으로 택한 받은 것은 성화의 원천이며, 그

84) 우리는 칼빈의 예정교리가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원천임을 말해줌으로 우리의 겸손을 촉구하려는 것으로 이해한다. *Inst. III. xxi. 1.* 그러므로 칼빈의 예정론은 결정론(기물관점과 같은)이나 민족구원설(길 바르트의 논리와 같은)을 반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cf. Johannes Calvin: *Von der Vorherbestimmung Gottes*, übersetzt Wilhelm H. Neuser (Düsseldorf: der Evangelischen Kirsche, 1998), 8-9.

85) F. Wendel, *Justification and Predestination in Calvin*, ed., Donald K. McKim (Baker Book House Co., 1997), 163.

86) *Inst. III. xxiv. 5.*
87) G. C. Berkouwer, *Studies in Doctrines ; Divine Election*, trans. Hugo Bekker (Grand Rapids: Wm. B. Erdmans Publishing Co., 1979), 132.
88) *Inst. III. xxiv. 5*
89) *Inst. III. xiv. 5*

선택이 주님 안에서 완전한 선택이기에 완전성화의 원천이라 할 수 있다.

B.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무조건적인 선택

선택받음으로써 거룩하게 되는 것이지 거룩하기 때문에 선택받은 것이 아니다.⁹⁰⁾ 하나님의 이 결정이 지배하는 곳에는 행위에 대한 고려가 있음을 수 없다. 하나님의 우리를 거룩하신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신 것이다(딤후 1:9).⁹¹⁾ 그러므로 만일 우리 가 거룩하리란 것을 예전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말한다면, 바울이 말하는 순서를 뒤집게 된다. 그러므로 신자들이 선택받음으로 인하여 거룩케 된다고 하는 생각과, 거룩한 행위 때문에 선택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두 가지 생각은 서로 일치할 수 없다.⁹²⁾

또한 앞으로 있을 공로에 선택의 은혜를 주시는 것도 아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택하실 때에 각 사람의 행위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고려하신다면, 그 선택은 거저 주시는 은혜가 아닐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뱉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요 15:16)라고 하신 말씀은 모든 신자들에게 전반적으로 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한다. 이 말씀에서 그리스도께서는 과거의 공로를 배제하실 뿐 아니라, 만일 그가 먼저 제자들에게 자비를 베푸시지 않았다면 제자들에게는 선택될 아무 이유도 없었으리라는 것을 지적하신다. 또 바울이,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깊으심을 받겠느노"라고 한 말은(롬 11:35)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인자하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

을 앞지르시기 때문에, 그들에게서 그의 은혜를 받을 만한 것을 과거에 나 미래에나 아무 것도 찾지 못하신다는 것이 바울이 밝히려고 한 것이다.⁹³⁾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그 기쁘신 뜻대로"(엡 1:5), "그 기쁘심을 따라"(엡 1:9) 하신 것이다. "그 기쁘심을 따라"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실 때에 자신 이외에는 아무 것에도 관심을 두지 않고 고려를 하시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은 오로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 찬양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다(엡 1:6). 따라서 우리가 선택된 데 대해서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만이 선포되어야 한다.⁹⁴⁾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실로 하여 "개으름을 피우거나 전혀 행하지 않는 자들은 정죄 받아 마땅하다."⁹⁵⁾고 칼빈은 말함으로 선택받은 자의 성화에의 책임을 그가 소홀하게 여기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비록 우리 자신의 노력에 의해서는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에 의해 교취된 노력은 효과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칼빈은 결정론을 반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예정교리의 유익은 하나님의 무조건적 인 은혜의 선택 앞에서 우리를 겸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선택된 자에게 주어진 믿음에 험담한 순종과 거룩함에의 경주가 우리의 주된 관심사여야 힘을 캄빈도 말하고자 하였음을 알 수 있다.⁹⁶⁾

90) *Inst. III, xxii, 3.*
91) John Calvin, *Sermons on the Epistle to the Ephesians*, trans. Arthur Golding (Edinburgh: The Banner of Truth Trust, 1987), 35-6.
92) *Inst. III, xxii, 3.*

93) *Inst. III, xxii, 3.*
94) *Inst. III, xxii, 3.*
95) *Ibid.*, 301-303.
96) D. A. Carson, *Divine Sovereignty and Human Responsibility*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94), 192.

에게서 말미암는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한편, 두렵고 멀림으로 힘써 우리의 구원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⁹⁷⁾ 따라서 칼빈은 '은총의 일방적인 승리론'의 만인구원설(Universalism)이 아닌 구원으로 선택받은 자의 성화의 완전성의 원천으로서의 선택을 말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칼빈의 이중예정에 대하여 바르트(Karl Barth)는 전통적인 개념을 거부하고, 이론바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해석한다. 곧 예수 그리스도는 선택이시고 예정이시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자부 속에서 사람을 선택하셨다. 여기에는 예(Ja)와 아니오(Nein)가 함께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에게는 '예'라고 말씀하시고 자신에게는 '아니오'라고 말씀하셨다. 따라서 이제 아니오(유기)는 인간에게는 관계없는 것으로 단정한다.⁹⁸⁾ 하나님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부당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⁹⁹⁾ 그러므로 바르트는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된다고 본다.

다.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는 다만 선택을 깨달았느냐 깨닫지 못 하였느

나의 정도의 차이로 본다.¹⁰⁰⁾ 여기에 바르트의 선택교리가 만인구원론에 헤당하지 않는가 하는 의문이 있다.¹⁰¹⁾ 따라서 바르트는 복음이 다만 기쁜 소식(only good news)이 되기를 바라고 칼빈의 선택교리의 이중예정의 의문점들을 제거하고자,¹⁰²⁾ 우리의 신앙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으로 변형시켜 버렸다.¹⁰³⁾ 이러한 논리는 하나님의 은총이 너무 크기에 하나님의 은혜에 험난하게 생활하지 않는 불신자라도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셨다고 생각하게 한다.¹⁰⁴⁾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받는 구원은 오직 아들을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다(요 3:16). 그러므로 칼빈은 선택 없는 믿음을 꿈꾸어 본 적이 없다고 하였고, 웨슬리도 사랑으로 사역하는 믿음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칼빈의 예정교리는, 논리적인 결정론도 아니며 은총의 일방적 인 승리론의 만인구원설(Universalism)도 아닌, 구원으로 선택받은 자의 성화의 완전성의 원천으로서의 선택을 말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칼빈은 하나님의 선택이 우리의 성화의 성화의 완전성의 근원이심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C.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선택이 성화의 완전성의 원천

선택으로 예정된 자는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고 기록함을 입어 영화를 계된다. 이러한 칼빈의 견해는 선택이 구원의 근원으로서 기록한 삶을 통하여 산 믿음을 가지게됨도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선택이 그 원천임을 말해주는 것이다. 인간의 성화와 선택의 원천이 오직 하나님의 선택하심의 은혜에 전적으로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 앞에 조금 도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이다. 토기장이의 비유는 우리의 구원과 믿음과 선택이 모두 하나님께 있음을 말해주는 적극적인 말씀인 것이다. 하나님은 권한만 아니고 항상 올바르게 행하심을 전제한다. "토기장이가 진흙

경고하고 있다. John Calvin, *Calvin's Calvinism*, trans. Henry Cole (Grand Rapids: Reformed Free Publishing Association, 1856), 185-6.

103) Harry Buis, 108.

104) Daniel J. Adams, *Lectures on Reformed Theology* (Seoul: Hyung Sang Books, 1990), 189-194. '만인구원론'의 문제점과 한계에 대하여는 스테芬 H. 트레비(Stephen H. Trevis), 『종말론 해설(Christian Hope & the Future)』, 김

근수 역(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87), 167-81.

98) C. D. II-2, 167.

100) C. D. II-2, 449.

101) Harry Buis, *Historic Protestantism and Predestination*, (Michigan,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58), 14.

102) 칼빈은 예정교리를 성경의 말씀을 따라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동시에 인간의 생각을 가감하는 경거망동을 금하였다. 그러므로 그는 믿음과 선한 양심을 따라 조심스럽게 예정교리를 논하고 나서, 좋은 목적이라지만 갈등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더라도 나의 의무를 다하였으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한 덩이로 하나님은 저희 쓸 그릇을 만드는 권리 없느냐"(롬 9:21) 말씀에서 '권'(權)이라는 단어는 창조주께서 스스로 기뻐하는 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나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칼빈은 알고, 올바르게 행동하는 능력이 그분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칼빈은 해석한다.¹⁰⁵⁾

그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그에게 진정한 믿음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은 모두 아버지께서 주신 사람들이며, 그가 그들의 보호자와 목자가 되시므로, 한 사람도 멀쩡하지 않을 것이라고 악속하신다(요 3:16, 6:39).¹⁰⁶⁾ 이 말씀을 단순히 기계론적인 논리로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 완전하듯이 선택받은 자의 구원과 선행도 완전하게 될 것임을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우신 선택 예정은 우리의 구원과 성화의 완전성의 원천이 되실을 알 수 있다.

VI. 칼빈의 성경주석에 나타난 성화의 완전성 이해

성경은 완전에 대하여 많은 말씀이 많이 있다. 먼저 성경은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말한다.¹⁰⁷⁾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의 완전에 대한 말

로 되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채 삼 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리 등

108) 그리스도 안에서 신자의 완전에 관한 성경구절 (마 5:17; 네가 올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 이로다) (행 3:16; 그 이름을 믿으므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골 1:28;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힘이나) (히 6:2; 세례들과 인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뉘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등

109) "30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 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31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힘이나라."(고전 1:30-31)

슴도 있다.¹⁰⁸⁾ 여기에서는 우리의 완전의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에 관한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관한 성경 구절들 중에서 칼빈의 주석을 고찰함으로 그의 완전에 관한 이해를 살펴 보고자 한다.

A. 고린도전서 1장 30-31절 주석에 나타난 성화의 완전성¹⁰⁹⁾

- 바울은 하나님의 페니서는 생명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30절). 우리의 존재(subsistensia)는 사실상 그리스도께 있으므로, 자민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그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영적 존재(essentia)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다.¹¹⁰⁾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께서 가진 보화가 무엇이며,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밝히여 주고 있으며, 그렇게 힘으로써 동시에 그는 우리의 존재 양식(modus subsistendi)을 설명하여 고 한다.¹¹¹⁾ 왜냐하면 바울이 그리스도를 우리
- 105) John Calvin, *Calvin's Commentaries; The Epistles of Paul the Apostle to the Romans*, 210.
- 106) *Inst. III. xxiv. 7.*
- 107)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대한 성경구절; (삼하 22:31;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예호와의 말씀은 정미하니 자는 자기에 펴하는 모든 자에게 빙폐사로다) (서 18:30;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예호와의 말씀은 정미하니 자는 자기에 펴는 모든 자의 빙폐사로다) (시 19:7; 예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예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잠 2:7;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봉제가 되시나니) (잠 19:21;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예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눅 13:32; 가리사대 가서 저 여우에게 이
- 110) John Calvin, *Calvin's Commentaries; The First Epistle of Paul the Apostle to the Corinthians*, trans. John W. Fraser (Grand Rapids, Michigan: Wm. B. Erdmans Publishing Co. 1960-1973), 45.
- 111) John Calvin, *Calvin's Commentaries; The First Epistle of Paul the Apostle to the Corinthians*, 45.

의 의리고 부를 때, 우리에 대한 반대적인 것도 깨닫어야 하는데, 즉 우리 안에는 죄밖에 없는 것이다. 여기서 그는 그리스도의 칭호를 네 가지로 묘사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완전성과 또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받은 모든 은혜를 요약한 것이다.¹¹²⁾

첫째, 바울 시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자혜’(σοφία)이시라고 말하고 있다. 이것에 의하여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혜의 절대적인 완전성’을 얻는데, 그 이유는 성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친히 우리에게 계 계시하시므로 우리가 그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알 수 없기 때문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다. 골로세서 2장 3절에도 이와 비슷한 말씀이 나타난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어 있으니라.”¹¹³⁾ 둘째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의로움’(δικαιοσύνη)이 되셨다고 말하고 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열납되고 주님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으며, 그리스도의 순종이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고 말하였다. 그러므로 믿음의 칭의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값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시는 데,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다.¹¹⁴⁾

셋째, 바울은 그리스도를 우리의 ‘거룩함’(ἅγιασμός)이라고 부른다. 바울은, 본성적으로 불의한 우리가 그의 성령으로 거룩하게 거듭나서, 하나님을 삼킬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여기에서 우리가 만일 동시에 거룩한 생활을 하지 않으면 믿음만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다 는 사실을 추론할 수 있다. 이런 은혜의 선물들은 분리할 수 없는 끈으로 결합되어 있어서, 만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분리시킨다면, 그 사람은 어떤 의미에서 그리스도를 조각조각 뗇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값없으신 은혜로 거룩하다는 청

호를 얻으려 한다면, 이 사실을 명심하여야 한다. 곧 만일 동시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거룩하신 분으로 물들지 않으면 이것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주님의 성령을 통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순결한 생활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이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익름이나 인정함을 받는다는 설교 속에서 사람들이 우리에게서 결점을 발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선행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 구절은, 믿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용서(칭의)와 마찬가지로 중생(성화)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¹¹⁵⁾

넷째,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ἀπολύτρωσις)하셨다고 밝히고 있다. 이 구속에 의하여 우리가 모든 죄의 종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그 죄로부터 유래되는 모든 불행에서 벗어나게 된 것이라고 그는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 그러므로 구속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최초의 은사이며, 풍서에 우리 안에서 완성하신 마지막 은사이다. 그러므로 구원은 우리가 죄와 죽음의 미로에서 구원을 받았을 때 시작된다. 한편, 아무리 우리가 구속을 고대하면서 최후의 부활의 날을 사모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로마서 8장 26절(이와 같이 성령 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미망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텐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 하시느니라)에 나타난 것과 같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의 값을 친히 치루 어 주셨다.¹¹⁶⁾

마지막으로 여기에 열거된 그리스도의 은혜를, 그 절반이나 혹은 일부 만이 아닌 전체를 모두 살펴보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추가하여 주셨더거나, 혹은 의와 거룩함과 자혜, 그리고 우리의 구속에 대한 어떤 벼랑벽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안에 서 자랑하라”(ἐν Κυρὶ καυχάσθω)고 말함으로 오직 그리스도만이 훌로 우

112) John Calvin, *Ibid.*, 45.

113) John Calvin, *Ibid.*, 45-46.

114) John Calvin, *Ibid.*, 46.

115) John Calvin, *Ibid.*, 46.

116) John Calvin, *Ibid.*, 46.

리를 위하여 그 모든 요소들의 완전한 성취가 되셨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리스도는 믿음의 유일한 대상이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은 역시 믿음이 무엇인가를 배우게 될 것이다.¹¹⁷⁾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인간 자신의 힘이나 지혜, 건강을 자랑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아는 것만을 자랑하라(렘 9:23,24)고 명령하고 있다(31절). 그러므로 참으로 하나님을 영회롭게 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자신의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영광스럽게 하여 드리려는 마음 자체를 가진 사람이며,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 만족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사람인데, 한마디로, 이런 사람은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사람이다.¹¹⁸⁾

요약하면 하나님을 떠나서는 생명이 없다. 우리의 존재는 사실상 그리스도께 있으므로, 자만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이다. 바울 시도는 그리

스도께서 가진 보화가 무엇이며,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밀하여 주고 있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동시에 그는 우리의 존재 양식을 설명 한다. 왜냐하면 바울이 그리스도를 우리의 의라고 부를 때, 우리에 대한 반대적인 것도 깨닫어야 하는데, 즉 우리 안에는 죄악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다. 여기서 그는 그리스도의 칭호를 네 가지로 묘사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완전성과 또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받은 모든 은혜를 요약한 것이다. 첫째, 그리스도가 우리의 지혜이시다. 때문에 우리

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의 절대적인 완전성'을 얻는다. 둘째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 그러므로 믿음의 칭의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값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시는 데,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셋째, 그리스도는 우리의 거룩함이다. 그러므로 본성적으로 불의한 우리가 그의 성령으로 거룩하게 거듭나서, 하나님

을 섬길 수 있게 되었다. 여기에서 우리가 만일 동시에 거룩한 생활을 하지 않으면 믿음만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추론 할 수 있다. 따라서 불의한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없음으로 신 은혜로 거룩하다는 칭호를 얻으려 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거룩하신 분으로 볼 들지 않으면 이것은 불가능하다. 즉 우리가 주님의 성령을 통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순결한 생활로 거듭나야 한다. 그러므로 이 구절은,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용서(칭의)와 마찬가지로 중생(重生) 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넷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救贖)하셨다. 이 구속에 위하여 우리가 모든 죄의 종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그 죄로부터 유래되는 모든 불행에서 벗어나게 된 것이다. 마지막으로 여기에 열거된 그리스도의 은혜 전체를 모두 살펴보면, 오직 그리스도만이 흘로 우리를 위하여 그 모든 요소들의 '완전한 성취'가 되셨다고 설명하고 있다.

칼빈이 본문주석을 통하여 전달하려는 메시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의와 거룩의 장본인으로서 우리의 허물 끊고 부족한 선행이라도 완전히 거룩하다 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성령을 통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순결한 생활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B. 골 1:28¹¹⁹⁾, 살전 3:13¹²⁰⁾ 주석에 나타난 성화의 완전성

바울은 클로세 교인들에게 그리스도께로부터 배우는 것보다 더 완전하게 될 수 있는 길은 없다는 것을 깨닫도록 해주고 있다(골 1:28). 그리

119)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전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힘이나" (골 1:28)

120)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령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살전 3:13)

고 바울은 즉시 자기 자신이 참 제자임을 보여주는 사람들은 모두 완전하게 되어진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부어주신 최고의 완전 이외에 무슨 더 좋은 것을 바랄 수 없는 것이다. 바울이 또 “그리스도 안에서”(ἐν Χριστῷ ἡγεοῦ)를 반복한 것은 끌로세 교인들로 하여금 오직 그리스도만을 아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을 바라지 않도록 하기 위함 것이다. 이 구절에서 우리는 참된 자혜에 대한 정의도 추론해 볼 수 있다. 우리는 참된 자혜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나타난다. 이 자체, 곧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자혜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다른 곳에는 없다.(121)

“너희 마음을 굽게 하시고”(살전 3:13)에서 말하는 ‘마음’(καρδία)이란 양심, 또는 영혼의 가장 깊은 면을 두고 하는 말이다. 즉 하나님께서는 성결한 마음을 바치는 사람만 받아 주신다는 뜻이다. 물론 여기에는 외적인 성결 뿐 아니라 내적인 거룩이 포함된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것은 우리의 거룩 때문인가? 그렇다면, 죄의 사면은 무슨 의의를 지나는 것인가? 하는 질문이 제기된다. 그리고 바울은 그들의 양심이 ‘거룩함(εὐλογόνη)’에 흠이 없는 것으로 말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칼빈은 바울이 여기서 죄의 사면을 배제하고 있는 것 아니라고 대답한다. 왜냐하면 죄의 사면이 없으면 여러 가지 불결로 보기 흥한 우리의 거룩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는 수단이 되는 신앙은, 마치 기초가 건축을 선행 하듯이, 다른 모든 것 보다 앞선다. 하지만 바울은 여기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선자들의 거룩의 성격이나 범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완전하게 되기까지 중대할 것을 강조하는 데 있다고 봄이다. 이런 이유에서 그는 “우리 주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라는 말을 덧붙이고

있는데, 이것은 주님께서 지금 우리 속에서 시작하고 있는 것의 성취가 그때까지 지연되고 있다는 이야기이다. 이러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여 주님 앞에 인정받는 산 믿음의 소유자가 되도록 “우리는 마음 속으로 거룩을 더욱 더 사모해야 마땅하다.”(122)

요약하면 그리스도께로부터 배우는 것보다 더 완전하게 될 수 있는 길은 없다는 것과 자기 자신이 참 제자임을 보여주는 사람들은 모두 완전하게 되어진 것이라고 증거 한다. 그리므로 완전한 성화의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이다. 우리의 성화는 내적인 것에서 시작하여 외적인 것을 포함한다. 우리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할 수 있는 거룩은 믿음과 회개를 통하여 은혜로 주어진 죄 사함에 기초한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선언적인 은혜로 시작한 완전은 주님의 계림 때 까지 성취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한마디로 칼빈은 본문주석을 통하여 성화의 완전성의 근거는 하나님의 은혜이며, 이 완전은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적인 칭의의 연장선상에서 실재적인 마음과 행위에 있어서도 성화의 완전성이 성취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고 본다. 여기에 성화의 완전성과 함께 점진성의 자리가 칼빈에게 있는 것이다.

VII. 결 론

칼빈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직 믿음에 의한 칭의를 강조한다.(123) 따라서 산 믿음의 중요요소인 선자의 성화 내지 선행의 문제도

122) John Calvin, *Calvin's Commentaries; The First Epistle of Paul the Apostle to the Thessalonians*, trans. Ross Mackenzie (Grand Rapids, Michigan: Wm. B. Erdmans Publishing Co. 1973), 356-57.

121) John Calvin, *Calvin's Commentaries; The First Epistle of Paul the Apostle to the Colossians*, trans. T. H. L. Parker (Grand Rapids, Michigan: Wm. B. Erdmans Publishing Co. 1965-74), 322-323.

'하나님의 은혜'에 초점을 맞춘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신자의 선행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신자 자신의 것으로 인정하시고 상 주신다. 성경에는 우리의 선행도 항상 불결한 점이 많으며,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그것을 불쾌하게 여기시며 우리에게 노하신다고 가르친다. 우리의 선행은 도저히 하나님의 노여움을 진정시키거나 우리에게 자비를 일으킬 수 없다.¹²⁴⁾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를 검토하실 때에, 그 최고의 법에 의거하지 않고, 자비로 판단하시기 때문에 마치 완전히 순결한 것 같아 용납해주신다.¹²⁵⁾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하여 밀음의 선물을 통하여 주어지는 청의 와, 역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신자의 부족한 선행이지만 거룩하다고 용납하시는 성화가 모두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거룩함에 근거하기 때문이다(렘 31:33, 헤8:10, 10:6). 그러므로 울법의 준행은 우리의 능력이 성취할 수 있는 일이 아니며, 성령의 능력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은 부끄러움부터 깨끗하여지고 의에 순종하도록 부드려워진다. 그래서 울법의 기능이 기독교인들의 경우에 있어서와 비 기독교인들에 있어서는 전혀 다르다.¹²⁶⁾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에게서 자신의 모습을 보시기 때문에 그들을 기뻐 하시며 사랑하신다. 중생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얼굴을 보실 때마다 당연히 그것을 사랑하시며 존중 하여 여기시므로, 거룩과 의를 지향하는 신자들의 생활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하는 것도 당연하다. 그러나 경건한 자들도 죄를 육에 쌓여 있기 때문에 그들은 여전히 죄인이며 그들의 선행은 아직도 불완전하며 육의 죄악의 냄새를 풍기고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죄인에 대해서만 포용하실 수 있다.¹²⁷⁾ 이렇게 죄인을 의롭다하심도 그리스도안에서나 그 행위에 대해서나 그대로는 받으실 수 없고 다만 그리스도 안에서 만 포용하실 수 있다.¹²⁸⁾ 이렇게 죄인을 의롭다하심도 그리스도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요, 중생된 자의 부족한 선행도 기쁘게 받으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이다. 따라서 이러한 이중용납(이중은총)의 기초가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궁로에 기초하고 있다는 성격으로 보아서, 칼빈의 성화에 대한 이해는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한 완전성화를 인정한다고 할 수 있다.¹²⁹⁾

cause)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Inst. III. xiii.* 21.

124) *Inst. III. xv. 4.*

125) "Yet because he examine our works according to his tenderness, not his supreme right, he therefore accepts them as if they were perfectly pure; and for that reason, although unmerited they are rewarded with infinite benefits, both of the present life and also of the life to come." *Ibid.*

126) *Inst. III. xvii. 5.*

127) 『칼빈의 신앙교육서』, 42.

제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화해하시면서 우리의 죄에 대하여 자비로우시고, 또한 마음 속에 하나님의 울법을 기록하실 것을 약속하시기 때문이다(렘 31:33, 헤8:10, 10:6). 그러므로 울법의 준행은 우리의 능력이 성취할 수 있는 일이 아니며, 성령의 능력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다.

고 의에 순종하도록 부드려워진다. 그래서 울법의 기능이 기독교인들의 경우에 있어서와 비 기독교인들에 있어서는 전혀 다르다.¹²⁸⁾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에게서 자신의 모습을 보시기 때문에 그들을 기뻐 하시며 사랑하신다. 중생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얼굴을 보실 때마다 당연히 그것을 사랑하시며 존중 하여 여기시므로, 거룩과 의를 지향하는 신자들의 생활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하는 것도 당연하다. 그러나 경건한 자들도 죄를 육에 쌓여 있기 때문에 그들은 여전히 죄인이며 그들의 선행은 아직도 불완전하며 육의 죄악의 냄새를 풍기고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죄인에 대해서만 포용하실 수 있다.¹²⁹⁾ 이렇게 죄인을 의롭다하심도 그리스도안에서나 그 행위에 대해서나 그대로는 받으실 수 없고 다만 그리스도 안에서 만 포용하실 수 있다.¹²⁸⁾ 이렇게 죄인을 의롭다하심도 그리스도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요, 중생된 자의 부족한 선행도 기쁘게 받으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이다. 따라서 이러한 이중용납(이중은총)의 기초가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궁로에 기초하고 있다는 성격으로 보아서, 칼빈의 성화에 대한 이해는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한 완전성화를 인정한다고 할 수 있다.¹²⁹⁾

128) *Ibid.*, 42.

129) *Inst. III. xvii. 5.*

130) Thomas S. Popkewitz, *Cultural History and Education : Critical Essays on Knowledge and Schooling*, (New York : Routledge Falmer, 2001), 195.

-Abstract-

An Understanding of the Possibility of Perfection in the Doctrine of Sanctification of John Calvin

Tae-Ju Yu
(Hanyang University &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Theology of Systematic)

The Bible tells us that we can be saved only through faith in Jesus Christ. But this faith must be a living faith, as the Bible teaches us. Therefore, we can find the record of the life of Christian perfection for the dedication and following of God's will in the Old Testament and the New Testament. Many Christians misunderstand the 16th century reformer's thought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faith (justification) and works (sanctification). Many Christians think that the reformers believed that we could not hope for Christian perfection in our life, because they stressed justification by faith. Therefore a misunderstanding of this idea became part of the faith of many our church, so that some Christians believe that through faith without works are can be saved.

John Calvin who was one of the most important reformers did not separate works from faith, he only made a distinction between them. That is, he speaks about the 'living faith' which is the faith with works.

John Calvin speaks about the sanctification founded on justification. Justification and sanctification are grounded from the grace and found upon the works of Jesus Christ alone. Therefore justification and sanctification are not separated but only a distinction is made between

them. In the understanding of the possibility of perfection in sanctification, John Calvin sees perfection in sanctification as a grace of God in Jesus Christ. Human works, even of Christians who are justified, are not to be enough for righteousness before God. However God accepts our works to be entirely holy through the holy works of Jesus Christ. John Calvin explains this problem in terms of 'double grace'. This double grace comes from Jesus Christ through the union with Christ. All the grace of salvation originates from the unconditional election of God in Jesus Christ.

Thus the understanding of the possibility of perfection in sanctification in the soteriology of John Calvin contains with in it the gradual progress of sanctification. Therefore God accepts a Christian's works even if too little to serve as a perfection of sanctification in Jesus Christ, but He does not accept a Christian who has no works or only wicked deeds against God's will. Here is a harmony between the perfection of sanctification in the grace of God and the gradual progress of sanctification as the fruits of faith.

Key Words : Christian perfection, double grace, gradual progress of sanctification, justification by faith, living faith